

[QT 세미나]

묵상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전인격적 긴장없이 대충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란
마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서
조그마한 떡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즙만 맛보는 격이 되고 만다.“

새 성전

예수는 자신을 ‘새 성전’(New Temple) 건축가라고 하셨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제사제도가 제시하는 성전 기능 -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 -을 당신의 삶과 생애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다. 즉 제단에서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once for all)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인류 역사 전체를 진동시키고 영적 세계의 모든 판도를 바꾼 획기적 선언이요, 새로운 성전의 거대한 모퉁이돌이 놓여지는 구속사적 광음이었다. 그때 1400여년 동안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질기디 질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나갔다! 하늘이 열린 것이다. 독이 터지듯 ‘하나님의 임재’라는 생명수가 전 인류의 타는 목마름 위로 해일처럼 밀려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지성소

더 이상 ‘죽은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없게 되었다. ‘산 돌’(Living stone)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도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들어가 고통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 그가 열어놓으신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는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엡 2:5,6).

구속사의 원액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서하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죽음의 심연을 거쳐 지고의 생명과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는 “제단 -> 지성소” 체험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시온 정상에 이르는 전 구속사의 원액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인격적 긴장없이 대충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란 마

치 주님의 살과 피를 떡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즙만 맛보는 격이 되고 만다.

예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 9:23,24).

성령이 주시는 상상의 시공간

그러므로 ‘묵상’(또는 ‘관상’)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공부일 수 없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생사를 걸고 따르셨던 주님의 음성과 얼굴 표정을 성령이 주시는 상상의 시공간속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묵상’(관상)속에서 정직하게 복음서의 세계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제자들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출처 : Q T 신 문 (2000. 5. 28)